

# 대구·경북지역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융합 연구

김선희

계명문화대학교 언어치료과 교수

## A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ies and Job Satisfaction of Speech and Language Rehabilitation in Daegu and Gyeongbuk

Sun-Hee Kim

Professor, Speech and Language Therapy,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언어재활사의 개인적 특성과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와 특히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언어재활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총 111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라 SPSS/PC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과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고,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집체 및 소집단이나 온·오프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와 대학에서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및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전국 단위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과 및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연구, 언어재활사,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직무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onvergenc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especially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11 people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working in Daegu and Gyeongbuk.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PC 21.0 statistical progra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high, and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ability, which is a sub-factor of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Therefo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empathy and job satisfaction about nationwide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for implement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and improving empathy skills in the future.

**Key Words** : Convergence Study,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Emotional Empathy, Cognitive Empathy, Job Satisfaction

\*This paper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Keimyung College University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Kim(sunnyday98@kmcu.ac.kr)

Received April 20, 2021

Accepted June 20, 2021

Revised May 26, 2021

Published June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측면 이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이 부여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직무만족도란 직업과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개인의 직무 자체나 주위 환경 등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 태도, 신념 등의 수준이나 차이에 따라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1]. 이러한 직무만족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무별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급여, 연령, 성별, 직장 등 외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2-8]. 그러나 직무만족도에는 외재적 요인 이외 공감과 같은 각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상태를 포함한 내재적 요인들도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9].

언어재활사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말, 언어, 의사소통의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하여 개별화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장애를 중재하고 예방하는 전문가로 부모나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0].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장애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및 정보를 재활 대상 상담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한다[11]. 언어재활사의 직무 전문성과 관련 직무만족도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언어치료에서 주요한 두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첫째,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사소통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언어재활사와 동료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긍정적 피드백 및 공감은 언어재활사 직무 수행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재활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내면적 역량 중 타인의 요구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성 즉 공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조건을 걱정하며 이해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내적 과정을 말하고[13, 14], 하위 요소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요인 및 의사소통적 요인으로 분류된다[15]. 인지적 공감은 상담자 자신의 공감의 정서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지적인 기제를 말하고, 정서적 공감은 내담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를 의미하고, 의사소통적 공감은 상대방의 현재 느끼는 감정에 대한 민감성

과 그 느낌을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감의 하위 요인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나 특히 의사소통적 공감은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력이 표현되어 구분에 모호한 면이 있어 특히 상담과 관련된 공감능력의 평가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력으로 이분화하여 평가하고 있다[14-16]. 언어재활 영역에서 공감은 의사소통장애 기능 개선, 의사소통장애인 및 양육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어재활에서 아동들의 언어 촉진자로서 일차적 역할은 아동의 양육자, 특히 어머니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자녀들의 의사소통장애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13, 17, 18].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공감능력은 언어재활에서 제공되는 언어재활사의 정확한 이론적 정보와 부모 교육을 포함한 언어재활사의 상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19]. 언어재활의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자와의 교감, 대상자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긍정적 기대 등의 요인과 관련하여[11] 언어재활사의 상담 역량은 직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20], 언어재활 이후 시행되는 상담에 있어 공감능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14].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언어재활 영역에서 상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공감의 영향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상담을 수행하는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과 언어재활사로서의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다른 재활 영역 및 상담이 요구되는 타 직무와 비교해 [21-23]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개인적 특성과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차이와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 특히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하여 언어재활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언어재활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능력 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언어재활사들의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과 특히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을 알아본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근무하는 언어재활사 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120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내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와 메일 및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과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중 회수된 115부에서 일부 문항에서의 무응답 등 문제점이 확인된 4부를 제외한 111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일반적 특성

언어재활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4, 9]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현재 직위와 근무처, 고용형태, 근무 기간 및 월 평균 급여액 등의 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2.2 공감척도

본 연구의 대상인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상담 능력이 요구되는 타 영역 치료사, 교사 및 유아교사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관련 선행 연구들[4,5,7,23-25] 중 공감능력 평가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공감능력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분류하여 실시한 선행연구[14-16]의 평가 문항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설문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상담 전공 전문가에게 문항 구성 및 문항 서술에 대해 질의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인지적 공감능력 11문항과 정서적 공감능력 14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선정된 설문지 구성에 대하여 다시 상담 전공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성을 확인받았고, 연구 참가자들은 각 내용을 읽고 '1점~5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1점은 '전혀 아니다'에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공감능력 14문항 중 1문항이 신뢰도를 저해하여 해당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13문항으로 공감능력을 측정하였다.

#### 2.2.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관련 문항은 선행연구[6,9,25]를 참고하여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1점은 '전혀 아니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 2.3 신뢰성 검증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에서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공감능력 0.888, 인지적 공감능력 0.790, 정서적 공감능력 0.805, 직무만족도에서 0.894의 신뢰도( $\alpha$ )를 보여 문항 간의 관련성이 높았다.

Table 1. Reliability Verification

Factor	Question numbers	Reliability( $\alpha$ )
Empathic ability	25	0.888
Cognitive empathy	11	0.790
Emotional empathy	13	0.805
Job satisfaction	14	0.894

### 2.4 자료분석 방법

연구 목적에 맞추어 SPSS/PC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 검증을 하였다.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고,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및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0.05수준에서 보았다.

## 3. 결과

###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13.5%, 여자 86.5%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30세 미만 51.4%, 30-39세 26.1%, 40세 이상 22.5% 순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59.5%, 대학원 석사 졸업 26.1%, 전문대 졸업 14.4% 순으로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 61.3%, 기혼 38.7%로 미혼이 많았고, 직위는 언어재활사 80.2%, 실장(팀장) 이상 19.8%였으며, 근무지는

사설센터 87.4%, 기타 12.6%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71.2%, 비정규직 28.8%였고, 근무 기간은 5년 미만 40.5%, 5-10년 미만 30.6%, 10년 이상 28.8% 순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37.8%, 250만원 이상 33.3%, 200-250만원 미만 28.8% 순이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15	13.5
	female	96	86.5
Age	<30years	57	51.4
	30-39years	29	26.1
	≥40years	25	22.5
	graduation from college	16	14.4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university	66	59.5
	graduate degree	29	26.1
	Marital status	unmarried	68
married		43	38.7
Official responsibilities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	89	80.2
	above manager	22	19.8
Work place	private center	97	87.4
	other	14	12.6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	79
unpermanent employee		32	28.8
Working period	less than 5 years	45	40.5
	Less than 5 to 10 years	34	30.6
	more than 10 years	32	28.8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42	37.8
	Less than 2 to 2.5 million won	32	28.8
	Over 2.5 million won	37	33.3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는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결혼상태( $p < 0.05$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공감능력은 결혼상태에서 기혼이 3.71점으로 미혼 3.54점보다 높았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기혼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비교에서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 $p < 0.05$ ), 결혼상태( $p < 0.05$ ), 직위( $p < 0.05$ ), 근무 기간(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만족도는 교육수준에서 대학원 석사 졸업 4.11점, 대학 졸업 3.80점, 전문대 졸

**Table 3.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Sig
Gender	male	3.76±0.31	1.48	0.143
	female	3.57±0.46		
Age	<30years	3.53±0.45	2.14	0.122
	30-39years	3.61±0.39		
	≥40years	3.75±0.46	1.18	0.313
	graduation from college	3.65±0.55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university	3.55±0.43	3.69±0.40	
	graduate degree	3.69±0.40		
Marital status	unmarried	3.54±0.41	-1.98	0.049*
	married	3.71±0.48		
Official responsibilities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	3.57±0.44	-1.27	0.204
	above manager	3.71±0.47		
Work place	private center	3.59±0.43	-0.42	0.676
	other	3.65±0.57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	3.59±0.43	-0.25	0.801
	unpermanent employee	3.62±0.47		
Working period	less than 5 years	3.57±0.43	1.64	0.198
	Less than 5 to 10 years	3.53±0.48		
	more than 10 years	3.71±0.41	0.39	0.679
Less than 2 million won	3.55±0.45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 to 2.5 million won	3.64±0.41	3.62±0.46	
	Over 2.5 million won	3.62±0.46		

\* $p < 0.05$

업 3.86점 순으로 높았고, 결혼상태에서 기혼이 4.02점으로 미혼 3.80점보다 높았다. 직위에서 실장(팀장) 이상이 4.18점으로 언어재활사 3.82점보다 높았고, 근무 기간에서 10년 이상 4.08점, 5-10년 미만 3.90점, 5년 미만 3.69점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근무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4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은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r$ )는 0.499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Table 4.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Sig
Gender	male	4.04±0.36	1.13	0.262
	female	3.87±0.57		
Age	<30years	3.82±0.58	2.28	0.107
	≥40years	4.09±0.47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college	3.86±0.71	3.41	0.037*
	graduation from university	3.80±0.51		
	graduate degree	4.11±0.50		
Marital status	unmarried	3.80±0.58	-2.10	0.038*
	married	4.02±0.47		
Official responsibilities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	3.82±0.52	-2.81	0.006*
	above manager	4.18±0.57		
Work place	private center	3.92±0.56	1.51	0.135
	other	3.68±0.46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	3.89±0.58	0.17	0.862
	unpermanent employee	3.86±0.49		
Working period	less than 5 years	3.69±0.40	4.31	0.016*
	Less than 5 to 10 years	3.90±0.61		
	more than 10 years	4.08±0.54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78±0.43	2.16	0.120
	Less than 2 to 2.5 million won	3.84±0.58		
	Over 2.5 million won	4.04±0.59		

\*p<0.05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mpathy and Job Satisfaction**

	Empathic Ability	Job Satisfaction
Empathic ability	1.000	
Job satisfaction	0.499*	1.000

\*p<0.05

### 3.5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에서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인지적 공감능력( $r=0.426$ )과 정서적 공감능력( $r=0.515$ )이 직무만족도와 관련성을 보여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서적 공감능력이 직무만족도와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Job Satisfaction
Cognitive empathy	1.000		
Emotional empathy	0.813*	1.000	
Job stisfaction	0.426*	0.515*	1.000

\*p<0.05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개인적 특성과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차이 및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 관련 기초를 제공하여 언어재활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과 공감능력에서는 결혼상태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기혼일수록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에서 교육수준과 직위가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근무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에서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공감능력이 결혼상태 특히 기혼일 경우 관련이 높았던 것은 가족의 지원 제공이 직무성취도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9]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와 공감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와의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에서 근무기간이 길고 직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치료사 경력의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치료사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9]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직무에 대한 가치 범주 인정이 4년제 대학교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26]와도 관련이 높았다.

또한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에 상관이 높았고 특히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재활사의 직무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재활 영역에서 공감은 의사소통장애인 자체의 의사소통 기능 개선과 양육자에게 각 아동의 의사

소통 기능 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관련하여 언어재활사로서의 직무만족도에 의사소통장애인의 기능 개선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 선행연구와도 관련된다(9) 할 수 있다(9).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인과 그 가정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 필요한 직무이고 관련하여 보호자 및 대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9)와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정서적 공감능력에서 높은 상관 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5). 또한 타인의 요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배려성이 언어재활사의 주요 역량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관련 이 있다고 할 수 있다(26). 그러나 간호사의 공감능력과 직 무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직무만족도와 관련 이 있었고(21)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지 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 관련 항목 수가 정서적 공감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2).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14-16) 존재와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 력 평가 시 각 공감능력의 하위 문항별 세분화와의 관련 이 있다고 여겨져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및 정서적 공 감능력을 세분화한 평가 항목 구성과 이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재활사 직무 수행에 상담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고 상담에서는 공감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14). 본 연구 에서도 공감능력이 언어재활사의 직무만족도와 높은 상 관을 나타내었다. 이에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 향상을 통한 직무능력 자체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집체 및 소집단 규모의 다양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능력이 직무만족도와 더 높은 상 관을 보였다. 현재 언어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에서는 '의사소통장애상담'이나 '부모교육' 등과 같은 정 규 교과목을 통한 강의식 운영으로 인지적 차원에서 상 담이나 공감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언어재활학과 개설 대학에서 의사소통장애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서적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 언어재활사를 대상 으로서만 하여 언어재활사 전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

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전국 단위의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과 직무만족 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실시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이후 참 가자들의 직무만족도 개선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S. H. Hur. (2018). *Development of Scale and Program for Empathy Capability*. Master's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 [2] E. J. Kim. (2020).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Job Satisfaction and Teacher Efficacy on Teacher-Child Interaction*. Master's disserta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 [3] S. K. Woo & Y. H. Seo. (2016). The relationship among optimism, empathy, and communication skills in early childhood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367-384. DOI : <https://dx.doi.org/10.20437/KOACECE21-1-151>
- [4] S. N. Kim. & S. S. Pu. (2013). The Impac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on the Teaching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4), 511-524. DOI : <https://dx.doi.org/10.5934/kjhe.2013.22.4.511>
- [5] I. H. Hwang & S. H. Jang. (2005) Effe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Empathy Ability Scale and Job Efficiency on Teacher's Job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2), 232-242. DOI : <https://dx.doi.org/10.5392/JKCA.2012.12.02.231>
- [6] H. A. Kim. (2011). *A Study on Work Conditions and the Satisfaction of Speech Language Pathologists - Focused on Jeollabukdo Province -*. Master's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Kwangju.
- [7] K. B. Kim & S. H. Sok. (2006). A Study of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 12(1), 14-24.
- [8] O. S. Park. (2004)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orking situation and job satisfaction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language therapy clinic*. Master's dissertation. Deagu University, Gyeongsan.
- [9] T. W. Kim. (2016). *A study on the perceptions of rehabilitation therapists' life at work and related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10] Y. T. Kim et al. (2014). Job analysis of Korean speech-language pathologist using Delphi stud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3(3), 147-161.  
DOI : <https://dx.doi.org/10.15724/jslhd.2014.23.3.012>

[11] H. K. Lee. (201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ffect of Speech - Language Therapy*.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Gwanju.

[12] S. Y. Jeon. (2017). *Professional Experience and Expectation as a Speech-Language Pathologist*,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13] S. K. Jin. (2016). *A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pathic Ability of Affairs of the World and Verbal Development of Infants*. Master's dissertation. Deagu University, Gyeongsan.

[14] K. I. Shin. (1994).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mpathy training program for counselo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Busan.

[15] S. H. Park. (1997).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 Moonumsa.

[16] S. H. Park. (2004). *Sympathy-Yesterday and Today*. Seoul : Hakjisa.

[17] J. M. Jun. (2006). Social Competence: Effect of Mother'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3), 226-240.

[18] S. M. Moon. (2006). *The Relationships among Mother's Emotional Empathy,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and Emotion Regulation*. Master's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19] J. H. Kim. (2012). *Survey of Demands of Parents with Children with Communication Disorders in Speech Language Therapy Services*. Master's dissertation. Nambu University, Gwangju.

[20] B. M. Lee. (2016).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Counseling Psychology-Related Academic Coursework*.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21] H. S. Jeong. (2015). The Effect of Empathy on the Job Stress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6), 3911-3918.  
DOI : <https://dx.doi.org/10.5762/KAIS.2015.16.6.3911>

[22] J. Y. Kim & K. E. Kim. (2003). A Study on th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Playtherapist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6(1), 25-42.

[23] C. K. Kyoung. (2018). *The Effect of Job Stress on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Childcare Teachers*. Master's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24] G. E. Jo. (2017). *A Study of Group Art Therapy on Improving Empathic Ability for Children in Early Elementary School*.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25] J. A. Kwon. (2005). *Factors affecting Factors affecting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Occupational Occupational Therapists Therapists*. Master'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26] Y. S. Jeon, D. Y. Kim, Y. W. Kim & H. H. Kim. (2013). Core Capacities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in Korea.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8(1), 1-11.  
DOI: <https://doi.org/10.12963/csd.13001>

김 선 희(Sun-Hee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학과(이학사)
- 2000년 6월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이학석사)
- 2011년 6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언어치료전공(이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언어치료과 교수
- 관심분야 : 신경언어장애, 뇌성마비, 소아삼킴장애
- E-Mail : sunnyday98@kmcu.ac.kr